

“교원징계, 음주·도박·성폭력이 40%… 기강 해이 심각”

■광주시의회, 민선 6기 첫 행정사무감사

자치구별 운영 5개 중독관리센터 제역할 못해

광주시의회가 6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선 6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 허위 작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쟁점이 됐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재)광주디자인센터의 방만한 경영 및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중독관리센터 역할 및 기능 미비와 희귀 난치성 어린이 전문병원 부실 운영 등이 지적됐다.

교육위원회는 감사 첫날부터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로 인해 정회 소동을 겪는 등 과정을 겪었고, 교원들의 기강해이와 학교 급식 부적격업체 공개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노사민정협,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조오섭(새정치·북구 2) 의원은 이날 사회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월과 지난해 3월 회의록 내용이 문서 양식만 다를 뿐 참석자 발언이 거의 똑같다”며 회의록 허위 작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협의회 구성도 조례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대표, 노사관계, 경제, 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고, 학계도 전문가가 아닌 각 대학 총장을 선임한 것은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협의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독관리센터 제역할 못해=김보현(새정치·서구 2) 의원은 이날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5개 중독관리센터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독관리센터는 5대 중독(알코올·도박·인터넷·니코틴·마약)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참가자도 892명으로 적은데다 이중 790명(90%)가 알코올 상담에만 편중돼 있다”면서 “이는 홍보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전문성 결여에 따른 만족도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전진숙(새정치·북구) 의원은 어린이전문병원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선정으로 전남대병원이 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전문병원이 3차에 걸친 계획변경으로 사업비는 50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소아놀이방 3곳과 응급실이 사라지고, 어린이 병상은 125개에서 51개로 줄어들었다”면서 “반면 산부인과 병상은 35개에서 50개로 늘어나 어린이 전문병원인지, 전남대병원의 산부인과 증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성실 감사 태도’로 정회 소동=이날 광주시 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유정심 위원장은 “시교육청에 연구학교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며 질의 시작 전부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유 위원장은 “연구학교 선정 심의 자료에 심사위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시교육청이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여서 담당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내용만 담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이 부교육감의 해명에도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출한 통계 수치가 엉터리”라며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필요없다”고 시교육청의 불성실한 사무감사 태도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감사가 20여분이 정회되기도 했다.

◇교원 기강해이 심각=문상필 의원이 이날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162명으

로 이중 품위유지 위반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업무 부적절 등 성실의무 위반 47명, 금품 수수 및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 25건,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5명, 성적조작 1명, 시국선언 서명 주도 3명 등이다.

특히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2010년 7명에서 2011년 9명, 2012년 17명, 2013년 14명, 지난해에는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품위유지 위반 세부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39명, 성범죄 6명, 간통이나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 4명, 교내도박 6명, 나머지는 협박, 폭행, 수업중 부적절 인터넷 사이트 접속, 교실 내 흡연 등이다.

징계를 받은 162명 중 4명은 파면됐으며 해임 11명, 감봉 37명, 정직 90명, 견책 80명 등이다. 문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교원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렴의식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여성취업 박람회 찾은 이낙연 지사

이낙연 전남지사와 주철환 여수시장이 6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2014년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에 참석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포브스 ‘올 영향력 있는 인물’

푸틴 1위, 박대통령 46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46번째, 여성 중에서는 5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5일(현지시간) 자체 사이트를 통해 “2년 연속 푸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Most Powerful People)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도 2위를 지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치스코 교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5위로 뒤를 이었다. 이들 ‘톱 5’는 지난해와 같았다.

이어 제니 앨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6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최고경영자(7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8위)가 10위권에 들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9위에 자리매김했다.

박 대통령은 전체 순위에서 46위에 올랐다. 지난해 52위에서 6계단 올랐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9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63위로 평가됐다.

이 외에 삼성전자 이근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35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45위에 각각 올랐다. /연합뉴스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전남도, 보육휴가 신설도

임신중인 전남도 여성공무원은 앞으로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은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최근 출산 장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신 및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 휴식시간이나 보육휴가를 주는 것 외에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의 경우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직자 10일 등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하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전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시·군, 재난관리 관심 여전히 낮다

자체 실태 점검 … 무안·광양·나주 ‘우수’, 순천·목포·신안 ‘미흡’

전남도는 6일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시·군 재난관리 실태 점검에서 무안군과 광양시, 나주시가 우수그룹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수 그룹의 점수가 70점에 불과하고

50점 미만인 곳도 다수 있었다. 그만큼 재난관리에 대한 시·군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24일까지 5일간 22개 시·군의 재난에 대응할 조직 구성 및 정비 실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 등 70개

지표를 점검해 점수화했다.

특히 부시장·부군수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풍수에 취약지역 및 폭염 취약사업장 점검 여부 등 단체장의 관심도도 반영했다.

점검 결과 무안군(77.55점), 광양시(77.39점), 나주시(74.47점)가 우수그룹으로, 순천시, 목포시, 신안군은 50점 미만으로 미흡 그룹으로 평가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체적으로 시장·군수의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 재난상황관리, 재난홍보, 재난역량강화 등은 대체적으로 향상됐으나, 재해 예방사업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교육훈련 실시 등은 대부분 시·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는 중앙 재난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추천하고, 미흡한 기관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통해 재난역량을 높여 책임행정을 강화하도록 계획이다.

또 우수기관엔 국비 예산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미흡기관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여고, 구도청, 밀려오리, 대안생원, 대안마을소, 새마을은행, 대안역국, 대안광장, 유동

총장지점: 구도청, 종파, 우리은행, 신상생원, 유동, 광주일고, 누문동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COLDZERO TECHNOLOGY

밀레 MILET: MOUNTAIN BY EXPERIENCE

라푸마 Lafuma Effect: OPEN AMCOO / CLOSE PMOOCO. 100%자연친화소재

061-371-7337 /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 010-3618-9615 (Lafuma)